

# 다시 생각하는 '침묵의 봄'

## 기후환경이야기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 의장



4월, 봄이 본격적으로 무르익어 가는 계절이다. 이때쯤이면 누구나 따스한 날씨에 만물이 악동하고 생명이 기운이 넘치는 자연의 숭고함을 느낀다. 야외에 나가면 겨울잠에서 깨어난 동물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메마른 대지에서 푸르른 새싹들이 올라오고, 앙상한 가지에서 화사한 꽃들과 나뭇잎에 새순이 녹색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연의 오묘한 질서에 경외감을 느낀다.

그런데 금년의 봄은 이상스럽다. 눈비가 오락가락하는 곳엔 날, 우중충한 날이 많았다. 제때 피어야 할 꽃들이 드문드문 피어서 꽃 축제를 준비하는 지역에서는 애를 먹었다. 기본 좋은 봄나들이 길이라도 나설까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날씨가 예전 같지 않다. 꽃이 피면 당연히 찾아오는 벌과 나비도 그리 많지 않다. 금년도 양봉업에 종사는 농민들은 꿀벌들이 죽어가거나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아서 울상이다. 사람들은 예년처럼 이리다가 저리로 건너뛰지 않을까 걱정한다.

지난 겨울처럼 눈과 얼음이 희귀한 겨울, 그리고 지금 봄 같지 않은 봄은 확실히 기후변화 때문이다. 평상시보다 기온

이 상승했고, 기상과 기후 패턴이 변해 버렸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가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다. 작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무더운 한 해였다. 기상 전문가들은 금년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전망한다. 나라 안팎으로 예년보다 더 심각한 기상재난이 빈발할 우려가 크다.

'침묵의 봄(Silent Spring)' 지난 1962년 미국의 생물학자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 여사가 저술한 책이다. 이 책에서 여사는 DDT 등 살충제와 제초제 등 독성 농약의 살포로 인해 병들어가는 자연과 파괴의 실상을 설파했다. 환경생태계의 인식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다. 과도한 농약의 사용으로 생태계의 파괴 및 인간에게도 치명상을 입힌다는 여사의 외침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사회적 관심과 논쟁이 시작되었다. '봄이 왔건만 자연계에 무수한 생명들이 죽어가거나 생기를 잃어버렸다', '봄이 침묵하고 있다'며 여사는 세상을 향해 외친 것이다. 시민들의 환경생태계에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했고, 대학의 관련 연구도 시작되고, 정부도 관련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침묵의 봄'은 미국을 비롯 인류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오늘날 활발한 환경생태계 운동과 국민의 기본권으로 환경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기본적 철학을 제공해 주었다.

60여 년 전과 오늘 2024년, 환경생태계 측면에서 하늘과 땅 사이처럼 차이가 크다. 지금 일반 시민들은 '위기'라는 말을 자주 접한다. 기후위기, 생태계 위기,

플라스틱 위기. 많은 과학자와 국제기구의 각종 보고서에 의하면, 위기를 적절한 대응책이 없이 이대로 방치하면 '전례없는 대재앙'이 불가피하다. 지구는 기후와 생태계가 붕괴하고, 플라스틱 오염으로 질식하고 만다는 것이다.

시민들이나 국가가 이런 절박한 위기에 공감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 현재까지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매년 370억 톤 이상의 탄소를 방출하고, 대양의 산호초도 죽어가고 있으며, 플라스틱 과용으로 인해 발생한 미세플라스틱이 에베레스트 산 정에서 마리아 해구까지, 또한 사람의 혈액, 심지어 태어날 아기의 태반에서까지 검출되고 있다.

'침묵의 봄'이 나왔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인류사회에 더 절박한 '위기'의 시대다. 개인이든 국가든 위기에 공감한다면, 그에 상응한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 침묵이 봄 이후 DDT와 같은 고독성 농약이 사라졌듯이, 위기의 제공하는 원인자들을 제거해 나아가야 한다.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순차적으로 퇴출시키고, 생물종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보존지역을 더 확대해야 한다.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해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시민적 의지, 정책적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봄이 무르익어 가는 4월, '침묵의 봄'을 다시 생각한다. 봄다운 봄, 화사한 봄 꽃 만발하고, 벌과 나비 날아들고 제비와 종달새 지저귀는 악동하는 봄날을 위해 행동의 필요함을 절감한다.



## 사진으로 보는 세상

1일(현지시각) 이라크 바그다드의 이맘 무사 알 카담 사원에서 시아파 신도들이 코란 선포의 밤인 '라일라트 알 카드르'(운명의 밤 혹은 권능의 밤)를 맞아 머리에 이슬람 경전 코란을 올려놓고 기도하고 있다. '라일라트 알 카드르'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처음으로 신의 계시를 받은 밤으로 라마단 기간 중 가장 신성한 날로 여겨진다. 바그다드=AP/뉴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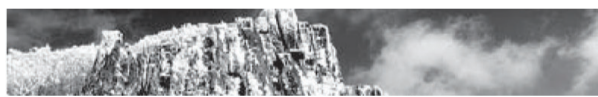
## 서석대

"천지간에 꽃입니다 눈 가고 마음 가고 발길 닿는 곳마다 꽃입니다/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지금 꽃이 피고, 못 견디겠어요/ 눈을 감습니다 아, 눈감은 데까지 따라오며 꽃은 피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이 화사한 아픔, 잡히지 않는 이 아련한 그리움, 참을 수 없이 떨리는 이 까닭없는 분노/ 아아, 생살에 떨어지는 이 뜨거운 꽃잎들." (김용택 '이 꽃잎들' 전문)

봄바람에 꽃 본 나비처럼 몸이 다는 날, 구레에서 하동으로 이어지는 섬진강에 가노라면 어김없이 땀도는 시다. '섬진강의 주인장'인 김 시인은 천지간에 꽃이 피는 4월을 영락없는 꽃달이라 한다. 이런 날에는 시인도 텃밭에 흙 묻은 호미만 던져 두고 이쁜 처자 손목 잡고 섬진강 봄물따라 꽃보러 간다. 세월은 강물보다 빨리 흐른다. 봄날만 기다리던 흥매, 백매, 산수유는 이미 다 이슬었고, 그 자리에 진달래, 목련, 산철쭉, 복사꽃이 시절을 만났다.

꿈같은 봄날, 남도땅 어디엔들 꽃바람이 불지 않을까마는 유홍준은 섬진강 꽃길을 '이 세상 들어 있기 힘든 아름다운 길'이라 칭송했다. 섬진강 마실길은 사계절 어느 때에 간다해도 다 좋지만 하다. 개중 낮에 나온 반달 아래 수줍게 핀 하동 만지 배꽃과 화계 벚꽃대궐이 짝꿍을 이루는 날

## 벚꽃 단상



의 나들이는 더할 나위 없는 판타스틱이다. 팝콘처럼 터지는 벚꽃은 만개했을 때도 비길 데 없이 아름답지만, 송이눈처럼, 흰나비처럼 나풀거리며 떨어지는 춤사위도 황홀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꽃비 내리는 날의 영화가 너무 짧아 야속하다. 절정이라는 소식에 꽃보러 갈 날 짜만 짚고 있다가 지나쳐 버리기 일쑤다.

예전에는 벚꽃을 두고 왜색이라 하여 부정적 시선으로 보는 이들도 더러 있었다. 일본인들이 정서적 국화로 여기는 사쿠라를 떠올렸기 때문이다. 사쿠라는 '진짜처럼 가장한 가짜'를 이르는 속어로 한때 정치판에서도 쓰였다. 하지만 이 뜻의 용어는 벚꽃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사쿠라니쿠'가 와전된 것이다. '사쿠라니쿠'는 벚꽃과 비슷한 연분홍색을 띠는 말고기를 가리키는 말로 '쇠고기인줄 알고 샀는데, 먹어보니 말고기'라는 이야기이다.

300개의 금배지를 두고 선량들을 뽑는다고 온 나라가 소란하다. 선거를 일주일 앞뒀으니 그럴 만도 하겠다. 바라거나 이번 총선에선 제발 '사쿠라니쿠'들이 뽑히지 않길... 그래야 봄바람 부는 날이면 장삼이사들도 시름없이 꽃구경 한 번 다녀오는 세상이 될 게 아닌가.

최도철 미디어국장

# 순천시 'K-디즈니' 새로운 한류 중심되길

## 국가정원 웹툰 활용해 재개장

지난해 누적방문객 900만명을 돌파하며 성공을 거둔 순천만국가정원이 1일 재 개장했다.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이란 주제로 새롭게 문을 연 순천만국가정원은 '한국판 K-디즈니'로 만들겠다는 순천시의 전략이 담겨 있다.

순천시는 국가정원의 동문과 서문을 잇던 '꿈의 다리'에 우주선 모양의 조형물을 설치해 이름을 '스페이스 브릿지'로 바꿨다. 동문과 서문 사이 '남문광장'에는 미스터리서클 형태의 화단을 조성해 전체적으로 우주선 모양을 띠게 하고 이름을 '스페이스 허브'로 변경했다. 또한 애니메이션 관련 공간을 만들어 인기 웹툰 '우미의 세포들' 속 '세포 캐릭터'를 활용한 미로, 애니메이션 '레드슈츠' 속 캐릭터 '우드베어'를 활용한 4차원 놀이기구, 산림청 '숲으로 가자' 홍보대사인 '두다다쿵'을 활용한 정원 탐험 콘텐츠를 선보였다.

새롭게 문을 여는 순천만국가정원은 K-디즈니 서막을 여는 신호탄이

다. 순천시는 지난해 정원박람회장을 미국판 디즈니랜드로 육성하고 순천도심은 문화콘텐츠 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순천시는 이미 한국의 픽사 '로커스'를 유치했고, 정부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협의도 활발하게 이뤄나가고 있다. 순천시가 롤모델로 삼은 디즈니는 마블, 워너브라더스와 픽사 등 미국 문화산업을 이끄는 세계적인 디즈니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이끌고 있다. 디즈니 대표 캐릭터인 미키마우스는 한해 수조원을 벌어들이는 효자 상품이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21세기 가장 각광받는 고용창출 사업으로 꼽힌다. 최근 우리나라는 영화, 노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콘텐츠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산업 생태계는 수도권 쏠림이 크다. 국가정원과 순천도심을 문화콘텐츠 전진기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순천시의 전략은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넘어 지역불균형 해소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정원도시' 순천시가 'K-디즈니'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한류의 중심이 되길 기원한다.

# 듬직한 광주과학기술원의 ESG경영 선언

## 위기 직면한 대학도 동참해야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포했다. ESG 경영은 단순한 윤리적 의무를 넘어 기관이나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더 나은 인류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난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GIST의 도전이 듦직하다.

임기철 GIST 총장은 지난 달 29일 구성원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미래 세대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ESG 경영'을 공표했다.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기여와 사회적 책임을 핵심 가치로 지역사회와 국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하겠다는 것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윤리적인 연구·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도 GIST의 목표다. 환경 의식과 실천 강화, 사회적 책임 증대,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도 제시했다. 교육과 연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

다는 점에서 대학의 ESG 경영은 기업만큼이나 중요하다. 당장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건물 설계나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는 녹색 캠퍼스는 환경의 지속가능이라는 점에서 대학만이 가능한 장점이다.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과 교직원을 포용하고, 차별 없는 캠퍼스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중요한 도전이다.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 청렴한 경영도 대학의 신뢰성을 높인다.

이제 남은 과제는 대학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ESG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캠퍼스를 위한 녹색 인프라와 함께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마련해야 한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위기감에 직면한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의 동참도 필요하다. 대학의 ESG 경영은 윤리적인 선택을 넘어 교육과 연구의 중심인 대학의 가치와 사명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이 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36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